

보도시점

2025. 8. 7.(목) 16:00
8. 8.(금) 조간

배포

2025. 8. 7.(목) 09:00

농식품부, 축산 폭염대응 직접 챙긴다! 전국 현장점검 실시 중

- 냉방장비·영양제 지원 등 지자체 대응현황 집중 점검, 현장 이행을 제고 노력
- 일부 지자체 선제적 폭염 대응 실시
- 농가 “영양제 폭염 대응 효과 높아···, 더 많은 지원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축산 농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폭염 대응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과 함께 「폭염 대응 시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시·도를 순차 방문 중이며, 현재까지 5개 시도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장비(환기팬 등)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이 농가에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금, 양돈농가 10여곳을 직접 방문하여 축사 내 온도 조절·급수관리 등 폭염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자체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1) A 지자체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25.4월부터 1개월간 취약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미리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 감축, 냉방시설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육밀도가 높은 농장에는 사육밀도 감축 지도, 축사온도 저감이 필요한 농장에는 냉방 에어컨 등 지원

(사례2) B 지자체는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직접 배송하지 않고 전문 택배 업체와 협력하여 공급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한 가금 농장주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급여한 이후 닭의 활동량이 증가했고,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3) C 농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으로 지원받은 순환팬, 안개 분무 장치를 통해 폭염기간 내 축사의 기온을 약 2℃ 떨어뜨리는 효과를 체감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폭염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지자체 물품지원 및 축사 폭염 관리 사례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효정	(044-201-2317)

참고

지자체 물품지원 및 축사 폭염 관리 사례

① 냉방장비 지원 사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냉방기 설치 지원



축사차열시설 설치지원

② 영양제 지원 사례

